

광주 수돗물 수질 관리 대폭 강화

시 상수도본부 유충 유입 실시간 모니터링·에어커튼 설치 용연정수장 500억원 들인 고도정수처리시설 준공 가동

광주시가 타 자치단체의 잇따른 수돗물 유충사고 등에 따른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위생적 수질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나섰다.

28일 광주시 상수도 사업본부에 따르면 용연정수장은 최근 동북호 상수원부터 정수장, 배수지까지 정수 처리 모든 과정을 현미경 등으로 조사한 결과 유충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상수도 사업본부는 여과지, 정수지에 생물체가 유입하는 것을 막으려고 바람을 일으키는 '에어커튼', 이중분, 포충기를 설치하고 창문 방충망도 1mm에서 0.1mm로 더 촘촘하게 보완했다.

상수원인 동북호 저수율이 47%(4300만㎡ 공급 가능일수 140일) 수준으로 예년에 못 미쳐 수질 악화가 우려되자 냄새 물질을 유발하는 조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수질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동북호 저수율은 2016년 90.2%, 2017년 69.9%, 2018년 70.8%, 2019년 73.4%, 2020년 80.2% 등을 유지해왔다.

동북호 원수는 저수율 40% 전후에서 수질이 나빠지고 정수장에 유입된 맛·냄새 물질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냄새가 날 수 있다고 상수도 사업 본부는 설명했다.

원수 127개, 정수 225개 등 기존 유해 물질 조사 항목에 카페인, 이부프로펜을 추가했다. 용연정수장은 맛·냄새 물질을 제거하는데 효율적인 고도정수 처리시설을 지난해 말 500억원을 들여 준공하고 시운전을 거쳐 오는 5월 전까지 질 좋은 수돗물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광주시가 이처럼 수질 관리 시스템을 추가로 강화하고 나선 것은 지난해 7월 인천시, 올 2월 제주도에서 수돗물 유충 민원 등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염방열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정수장 위생과 수질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사진설명>광주시 상수도 사업본부 직원이 수돗물 원수 수질과 수돗물 내 유충 포함 여부 등을 현미경으로 정밀 조사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상수도 사업본부 직원이 수돗물 원수 수질과 수돗물 내 유충 포함 여부 등을 현미경으로 정밀 조사하고 있다.

광주역사민속박물관 "유물 기증 받습니다"

광주 인물·금융·종교·생활사 자료 올해말까지...연구·전시 등에 활용

광주역사민속박물관은 "광주 역사문화자원을 확충하고 지난해 세단장한 광주근대역사실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말까지 유물 기증 운동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증 대상은 조선시대부터 광복 이후까지 ▲광주출신 인물 관련 문헌 자료 ▲광주지역 금융, 의료, 교육, 종교 관련 자료 ▲광주 도시 생활사(아파트, 도로, 상하수도 등) 관련 자료 등이며, 시민 누구나 전화 또는 이메일(mybooyou@korea.kr)로 박물관에 기증 접수를 하면 된다.

자료 상태가 비교적 온전하고 가치가 인정되는 유물은 기증 절차 후 클리닝과 보존처리를 거쳐 연구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전시할 예정이다.

광주역사민속박물관은 지난해 개보수를 통해

조선시대부터 광복 이후 광주역사를 한 눈에 살필 수 있는 광주근대역사실을 신설했다.

지난해 9월에는 해광공중문화에서 '광주 운암서원 해광집목판' (시유형문화재 제31호) 54점(완매)을 기증하기도 했다. '해광집'은 임진왜란 의병으로 활약한 송제민(1549-1602)의 문집으로, 호남의병 역사와 관련한 귀중한 자료다.

앞서 2016년 9월에는 호남 역사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고문서류 110점을 장흥고씨수촌공파로부터 기증받았다. '고정봉 시권(과거시험 답안지)' 등은 현재 광주근대역사실에 전시돼 18세기 광주에서 치러진 특별한 과거시험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기증된 박물관장은 "유물 기증은 오래 전 광주를 현 세대에 전달하고, 우리 이후의 세대에 이어준다는 점에서 의미있다"며 "지역문화의 가치를 이어가는 유물 기증 캠페인에 적극 참여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광주시청 분관 1층 어린이 안전체험관 앞에 마련된 '소방안전 미니서점'에서 한 어린이와 보호자가 소방안전 관련 책을 읽고 있다.

DB 구축·전시실 현대화...5·18기록관, 디지털 사업 본격화

유네스코 등재 10주년 맞아 광주형 AI 뉴딜 사업으로 추진

5·18 민주화운동기록관(관장 정용화)은 올해 5·18 민주화운동 41주년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10주년을 맞아 5·18 기록물 통합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전시실 현대화, 서고 증설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28일 5·18 민주화운동기록관에 따르면 기록관의 현안 업무들을 향후 과학기술·디지털 뉴딜 사업과 연계해 추진하기로 했다.

기록물 통합DB구축 사업은 광주형 인공지능

(AI) 뉴딜 신규사업으로 추진 예정이다. 인공지능 분석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전 세계 실시간 동향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시실 현대화 사업의 경우 인공지능(AI)과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등의 첨단 기술이 집약된 전시실로 새롭게 구성될 예정이다. 현재 국비지원 신청 단계다. 최근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 본부장도 5·18기록관을 방문, 이 같은 사업에 관심을 보여 향후 사업 추진도 순조로울 것으로 기대된다.

김 본부장은 기록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5·18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과 태극기, 유품 등을 실제로 보니 감회가 매우 새롭다"면서 "5·18민주화운

동 정신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란다" 라고 밝혔다.

정용화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은 "디지털 산업이 각광 받는 오늘날 우리 기록관에서 다양한 디지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5·18민주화운동의 세계화는 디지털 산업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오후 6시(매주 월요일 휴무)다.

5·18기록관 인근에 위치한 전일빌딩245의 5·18기념공간 관람시간은 오전 10시~오후 7시까지 함께 관람할 수 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주농기센터 영농철 농기계임대사업 확대 운영

석정분소 문 열어 3곳으로 늘어 농기계 75종 620대 임대

4~6월 토요일·휴무일도 문 열어

광주시농업기술센터는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됨에 따라 지역별 농업현장 맞춤형 농기계 임대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용곡분소와 용강분소에 이어 올해 석정분소가 문을 열어 총 3곳으로 확대됐

으며, 임대 농기계도 석정분소에 45종 172대가 추가돼 총 75종 620대로 늘었다.

또 평일 농기계 임대대 어려운 시민을 위한 휴무일 서비스도 계속한다. 오는 4월부터 6월까지의 일요일을 제외한 토요일과 휴무일(어린이날, 석가탄신일 등)에도 운영한다.

농기계임대사업소는 2013년 광산구 평동에 소재한 용곡분소를 시작으로 2016년 북구 용강동에 용강분소, 올해 3월 8일 남구 석정동에 석정분소를 개소했다.

석정분소는 2019년 '시장과 주민과의 대화'에

서 동·서·남 3개구 농업인의 농기계 임대 편의성 제고를 위한 임대사업소 설치 요구에 따라 추진됐으며, 국비 확보와 구유지 무상 사용허가 등 남구청의 적극적인 협조로 건립됐다.

양희열 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앞으로도 농업현장의 농기계 사용률을 높여 누구나 쉽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영농서비스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 현황은 용곡분소(광산구 용곡동 32-6, 062-613-5328, 5329), 용강분소(북구 용강길 126, 062-575-5745, 5746), 석정분소(남구 석정동 389-4, 062-370-0805, 0806) 등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소방본부, '소방안전 미니서점' 운영

시청 1층 안전체험관 앞에 개점 안전사고 대처 다양한 책자 비치

광주시 소방안전본부가 시청 분관 1층 어린이 안전체험관 앞에 '소방안전 미니서점'을 개점했다.

미니서점은 학교,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운영되던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이 코로나19로 인해 축소됨에 따라 비대면 환경에 맞춰 새롭게 기획됐다. 향후 학교 및 공공기관 등에 확대·설치할 계획이다.

비치된 책자는 유아, 초등학생 등 어린이용은 물론 취약계층인 노인, 여성, 장애인, 외국인까지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제작된 '우리는 안전어린

이' 등 10여종이며, 화재 시 피난방법과 응급상황 시 대처 요령, 그 밖에 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사고 대처법을 소개하고 있다.

시민 누구나 무료로 필요한 책자를 별도 절차 없이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어 소방안전교육 활성화와 시민 안전사고 예방에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정자 광주시 구조구급과장은 "코로나19 상황에도 시민대상 소방안전교육을 지속하기 위해 미니서점을 기획·운영하게 됐다"며 "미니서점을 시작으로 온라인 소방안전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등 여러 방법으로 시민을 위한 소방안전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